

# 드.뽀.더.쥘트!!!

-부력, 이상기체, 그레고리력보다 쉽다.

## Vol.9 해설편

그믐달국어연구소 편지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민간의 채무 계약은 법원에 의해 강제된다. 만약 기업이 채무 상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가 채무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의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리에 의해 채무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국가의 상업 거래에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 제재나 구제 절차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답을 찾고자 하다. 이에 한 논의의 출발은 이튼의 **고전적 가설**이다.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는 GDP 감소에 대비하기 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이 채무 상환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이후 이 가설은 두 가지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나는 GDP가 감소할 때 해외 차입이 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이라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불황에 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황 시 총수요 유지를 위한 해외 차입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신용시장에서 배제하겠다는 위협의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 시 신용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는 채권국의 입장에서도 영구 배제보다 신용거래 재개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증 자료도 이튼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지난 30년 동안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국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국제자본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었다. 채무불이행 이후 자본시장 접근이 배제되는 기간은 1980년에는 평균 4년이었으며, 이후에는 2년 이내로 더 짧아졌다.

이튼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튼 가설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설을 구축하려고 하다. 이 가설들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설**은 채무 상환의 이유를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 같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우려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셋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나타나게 될 피해에 주목한다.

이를 확인하기 한 실증 작업은 채무불이행 이후 가해진 제재의 효과와 국내 경제 피해에 한 계량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채권국의 직접적 제재 효과는 주로 무역량의 감소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들에서 무역량이 감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무역량 감소 기간이 3~4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역 제재 위협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신용시장에서의 평판 효과는 차입 금리의 높낮이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1997~2004년의 자료에 기반 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이후 1년 동안은 가산 금리가

4% 포인트 상승했지만 2차 년도에는 2.5% 포인트로 낮아졌으며, 3차 년도 이후에는 통계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가산 금리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신용시장 평판 하락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내 경제 피해 여부는 GDP 증가율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최근의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은 GDP 증가율을 약 0.6% 포인트, 은행기를 동반할 경우에는 2.2% 포인트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후부터는 채무불이행이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시적 GDP 증가율 하락도 영구적인 손실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GDP 감소를 초래하는 구체적 경로가 밝혀진다면 이 가설의 설명력은 더 커질 것이다.

# 그믐달 국어

1. 위 글에서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있다.
- ② 모든 가설은 국가 채무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③ 고전적 가설은 신용시장에서 채무국을 배제하는 것이 채권국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 ④ 가설 중 일부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직접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⑤ 가설 중 일부는 채무국의 신용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시장 매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장에 다시 접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 채무 상황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 4문단 3-4행 - 첫째 가설은 채무 상황의 이유를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⑤ [근거] 4문단 4-6행 -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 같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우려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논리에 기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 [근거] 2문단 4-8행 -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는 GDP 감소에 대비하기 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시장에 다시 접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 채무 상황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 3문단 6-9행 -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 시 신용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는 채권국의 입장에서 영구 배제보다 신용거래 재개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고전적 가설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를 신용시장에서 영구 배제한다고 하였지만, 고전적 가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를 신용시장에서 영구 배제시키는 것보다 신용거래를 재개하는게 채권국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았고, 이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를 신용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채권국에게도 영향을 끼치기에 채권국이 채무국을 신용시장에서 영구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고전적 가설에서는 채무불이행 선언은 채무국이 신용 시장에서 영구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전적 가설에서는 신용 시장에서 채무국을 배제하는 것이 채권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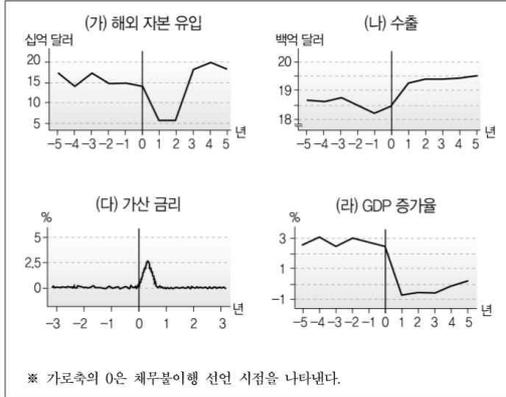
① [근거] 2문단 4-8행 -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는 GDP 감소에 대비하기 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시장에 다시 접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 채무 상황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 4문단 3-7행 - 첫째 가설은 채무 상황의 이유를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 같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우려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셋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나타나게 될 피해에 주목한다.

② [근거] 1문단 3-8행 - 국가 채무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의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리에 의해 채무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국가의 상업 거래에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 2문단 1-3행 - 이러한 까닭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 제재나 구제 절차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답을 찾고자 하다.

④ [근거] 2문단 4-8행 -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는 GDP 감소에 대비하기 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시

# DROP.THE.LEET!

2.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어느 국가의 경제 변수들의 추이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위 글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바르게 해석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는 고전적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ㄴ. (나)는 첫째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ㄷ. (다)는 둘째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ㄹ. (라)는 셋째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정답 선택지 해설>

④ [근거] ㄱ. 2문단 4-8행 -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 GDP 감소에 대비하기 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구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 시장에 다시 접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 채무 상황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 3문단 9-14행 - 지난 30년 동안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국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국제자본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었다. 채무 불이행 이후 자본시장 접근이 배제되는 기간은 1980년에는 평균 4년이었으며, 이후에는 2년 이내로 더 짧아졌다.

ㄴ. 4문단 3-4행 - 첫째 가설은 채무 상황의 이유를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 5문단 3-8행 - 먼저 채권국의 직접적 제재 효과는 주로 무역량의 감소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들에서 무역량이 감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무역량 감소 기간이 3~4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역 제재 위험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ㄹ. 4문단 6-7행 - 셋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나타나게 될 피해에 주목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고전적 가설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순간 채무국은 신용시장에서 배제되어 해외 자금 차입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보기>의 (가)를 보면 채무불이행 선언 직후 2년간은 해외 자본 유입이 감소했으나 3년째부터는 채무불이행 이전 해외 자본 유입량을 회복하였기에 고전적 가설을 비판하는 실증 자료와 부합하므로, <보기>의 (가)는 고전적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ㄱ), 첫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 채권국이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과 같은 직접적인 제재를 채무국에 가한다고 하였으나, <보기>의 (나)를 보면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에는 선언 이전보다 해외 무역량과

관련이 있는 수출이 오히려 늘어난 모습을 보이기에 채무불이행과 무역량 감소를 단정적으로 연관짓기 어렵다는 실제 사례와 부합하므로, <보기>의 (나)는 첫째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ㄴ), 셋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보기>의 (라)를 보면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선언 이전보다 GDP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하나 채무불이행 선언 이전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인한 GDP 증가율 하락이라는 영구적 손실을 입은 것은 실증 연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기>의 (라)는 셋째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ㄹ).

### <오답 선택지 해설>

ㄷ. [근거] 4문단 4-6행 -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 같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우려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 6문단 전체

# 그믐달 국어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일반적으로 철학적 근대는 감성의 역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 자아를 정초한 데카르트에서 출발하여, 주제뿐 아니라 객체의 세계까지도 선형적 이성의 상태로 규정한 독일 관념론에 이르러 완결된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시작과 끝만 보고 이 시대 전체를 이성지상주의의 단선적 질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는 이성의 독주에 맞서 감성에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다양한 사조들 역시 유의미한 반대 노선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학적 근대**는 어떤 곡절을 거쳤기에 그러한 귀결에 이르렀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사상 운동이다. 그중 1913년에 발견된 후, 후일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 강령」(이하 「강령」)으로 명명된 18세기 말의 작가 미확정 텍스트는 단연 흥미를 끈다. 왜냐하면 이성지상주의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것이 독일 관념론인데, 그 사조의 출발에 위치하는 이 글에서는 오히려 사뭇 다른 입장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령」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저 이 글에서 강하게 감지되는 ㉠ **실러의 정치 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세계여, 그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오라!” 라고 외치는 실러처럼 「강령」의 저자도 고대 그리스에 견줄 수 있는 충만한 미적 차원의 문화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실러의 이러한 생각은 일차적으로는 공포 정치로 극단화된 프랑스 혁명과 인간의 소외가 만연한 시민 사회에 대한 실망에서 나왔으며, 근본적으로는 혁명의 사상적 모태인 계몽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가 보기에, 계몽주의는 추상적 지성의 계몽에만 경도되어 인간의 소중한 정신 능력들의 조화를 파괴했기 때문에 혁명의 과격화는 필연적이다. 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심성이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미분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실러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참된 인륜 공동체를 구하기 해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인간 심성 자체의 미적 교육, 즉 감성 충동과 이성 충동을 화해시키는 ‘유희 충동’의 계발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정치 미학 노선을 발전시켜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모델을 제안한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그가 지향하는 이상은 계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신화학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화해, 즉 신학을 통해 참된 모습으로 변용된 계몽이다. 실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계의 재림처럼 그가 지향하는 신화학 역시 계몽의 미적 고양을 핵심으로 한다. 더 나아가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노선을 무정부주의 방향으로까지 극단화하여, 신화학이라는 미적 차원의 문화를 참된 현실 정치의 선행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국가의 종식을 통해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구상한다.

그러나 이게 미적 절대주의로까지 극단화된 노선에서 출발한 독일 관념론은 이후 사상가들이 다다른 ㉢ **그 최종판에서는 근대 초기보다도 훨씬 강화된 이성지상주의로 전환된다.** 이러한 환은 과거의 신학적 세계와 당대의 국가적 삶의 양식에 한 새로

운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근대의 정치적 양상이 이제는 상실이나 아니라 획득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견 아름다워 보이는 고대에서는 오히려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절대 다수의 억압이 자행되었고, 시민 사회를 거쳐 형성된 근대의 입헌적 질서에서는 다수의, 나아가 만인의 보편적 자유가 구현된다.

이러한 정치 입장의 근거에는 세계의 전체 과정이 자유로운 이성의 자기실현 과정에 속한다는 형이상학이 작용하고 있다. 즉 역사란 태초의 근원적 원리인 선형적 이성이 현상계에서 실현되는 거대한 과정에 포함되는 하나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감성이 지배하는 신화 세계가 지양되고 이성이 지배하는 시민 사회와 국가 체제가 출현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와 같이 미적 차원에 속하는 것은 정신사의 미발견된 초기에만 인간 심성을 도야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성의 전진을 통해 도달한 시에 다시 미적 이상향을 꿈꾸는 것은 계몽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4. 위 글에 따라 **철학적 근대**의 전개 과정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 ① 이성지상주의와 그 반대 노선이 충돌하자, 양자가 각각 부분적 타당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통해 다수 이론의 공존을 용인하는 합리적 사상이 강화되었다.
- ② 이성지상주의에 대해 그 반대 노선이 도전했지만, 도전의 근거로 제시된 현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더 강화된 이성지상주의가 등장하였다.
- ③ 이성지상주의의 부적절성이 반대 노선에 의해 입증되자, 애초의 전체에 내재한 오류의 인식을 통해 사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 ④ 이성지상주의와 그 반대 노선이 충돌하자, 두 입장 모두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양자의 매개를 추구하는 중립적 이론이 형성되었다.
- ⑤ 이성지상주의가 반대 노선의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를 물리치고 처음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확고한 노선이 유지되었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② [근거] 1문단 6-8행 -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는 이성의 독주에 맞서 감성에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다양한 사조들 역시 유의미한 반대 노선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 3문단 1-5행 - 「강령」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저 이 글에서 강하게 감지되는 실리의 정치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름다 운 세계여, 그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오라!” 라고 외치는 실려처럼 「강령」의 저자도 고대 그리스에 견줄 수 있는 총명한 미적 차원의 문화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 3문단 11-17행 - 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심성이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 운 미분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실리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참된 인륜 공동체를 구하기 해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인간 심성 자체의 미적 교육, 즉 감성 충동과 이성 충동을 화해시키는 ‘유희 충동’의 계발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 4문단 2-6행 -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그가 지향하는 이상은 계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신화학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화해, 즉 신화학을 통해 참된 모습으로 변용된 계몽이다. 실려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계의 재림처럼 그가 지향하는 신화학 역시 계몽의 미적 교양을 핵심으로 한다. + 5문단 3-9행 - 이러한 환은 과거의 신화적 세계와 당대의 국가적 삶의 양식에 한 새로운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근대의 정치적 양상이 이제는 상실의 아니라 획득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견 아름다워 보이는 고대에서는 오히려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절대 다수의 억압이 자행되었고, 시민 사회를 거쳐 형성된 근대의 입헌적 질서에서는 다수의, 나아가 만인의 보편적 자유가 구현된다. + 마지막 문단 전체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철학적 근대는 이성지상주의로 시작했지만 철학적 근대의 진행 과정에서 이성지상주의에 반대하고 감성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고대 그리스 시대와 같이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현실 정치 속에서 참된 인륜적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실리의 정치미학의 영향을 받은 「강령」과 같은 책에서 새로운 신화학을 주장하며 이성지상주의에 대해 반대 노선이 등장했지만, 새로운 신화학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졌고 이성지상주의에 반대하는 근거가 된 사회 모델인 고대 그리스 시대는 사실 절대 소수의 이익을 위해(ex. 귀족, 시민) 절대 다수의 억압(ex. 여성, 노예.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인 남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다.)이 이루어졌고 이성에 의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 근대의 입헌적 질서에서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자유가 구현되었음을 들어 이성지상주의의 반대 노선에서 내세운 도전의 근거를 재해석하여 감성의 역할을 인정한 고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

가는 것은 계몽을 위한 것이 아닌 계몽을 방해하는 것이라 여기고 이성의 실현을 통한 국가 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더욱 강화된 이성지상주의가 등장하게 된 발판을 마련하였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 <오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이성지상주의와 그 반대 노선이 충돌한 것은 맞으나, 양자의 부분적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지상주의의 반대 노선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들어 더욱 강화된 이성지상주의가 등장했다.

③ [연결논리] 이성지상주의가 반대 노선에 도전받은 것은 맞으나, 그것으로 인해 이성지상주의의 부적절함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지상주의의 반대 노선의 근거에서 허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해석하여 이성지상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④ [연결논리] 이성지상주의와 그 반대 노선이 충돌한 것은 맞으나, 그 두 입장 사이의 중립적 이론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⑤ [연결논리] 이성지상주의가 반대 노선의 도전에 직면한 것은 맞으나, 이 도전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반대 노선의 근거를 재해석하여 처음보다 더 강한 이성지상주의가 등장한 것이 초기의 이성지상주의와 동일한 이성지상주의가 유지된 것은 아니다.

# 그믐달 국어

## 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실 정치를 위한 미적 교육을, ㉡은 무정부주의적 신화학을 모색한다.
- ② ㉠은 독일 관념론을 위한, ㉡은 계몽주의를 위한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다.
- ③ ㉠은 계몽주의의 지속적 완성을, ㉡은 계몽주의의 근본적 청산을 지향한다.
- ④ ㉠과 ㉡은 모두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을 노선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다.
- ⑤ ㉠과 ㉡은 모두 미적 절대주의를 통해 참된 인문적 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한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3문단 13-17행 - 이에 실리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참된 인문 공동체를 구하기 해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인간 심성 자체의 미적 교육, 즉 감성 충동과 이성 충동을 화해시키는 '유회 충동'의 계발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 4문단 7-10행 - 더 나아가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노선을 무정부주의 방향으로까지 극단화하여, 신화학이라는 미적 차원의 문화를 참된 현실 정치의 선행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국가의 종식을 통해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구상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은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참된 인문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을 선행 조건으로 보고 있고,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을 위해서는 감성과 이성의 화해가 주된 내용인 인간 심성 자체의 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은 실리의 정치 미학의 영향을 받아 이성과 감성의 화해를 통한 새로운 신학을 국가의 종식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 목표로 여기는 무정부주의적 신학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 <오답 선택지 해설>

② [근거] 2문단 2-7행 - 그중 1913년에 발견된 후, 후일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 강령」(이하 「강령」)으로 명명된 18세기 말의 작가 미하엘 텍스트는 단언 흥미를 끈다. 왜냐하면 이성지상주의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것이 독일 관념론인데, 그 사조의 출발에 위치하는 이 글에서는 오히려 사뭇 다른 입장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 3문단 1-11행 - 「강령」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저 이 글에서 강하게 감지되는 실리의 정치 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름다 운 세계여, 그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오라!” 라고 외치는 실러처럼 「강령」의 저자도 고대 그리스에 견줄 수 있는 총명한 미적 차원의 문화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실리의 이러한 생각은 일차적으로는 공포 정치로 극단화된 프랑스 혁명과 인간의 소외가 만연한 시민 사회에 대한 실망에서 나왔으며, 근본적으로는 혁명의 사상적 모태인 계몽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가 보기에, 계몽주의는 추상적 지성의 계몽에만 경도되어 인간의 소중한 정신 능력들의 조화를 파괴했기 때문에 혁명의 과격화는 필연적이다.

③ [근거] 3문단 1-11행 - 「강령」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저 이 글에서 강하게 감지되는 실리의 정치 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름다 운 세계여, 그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오라!” 라고 외치는 실러처럼 「강령」의 저자도 고대 그리스에 견줄 수 있는 총명한 미적 차원의 문화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실리의 이러한 생각은 일차적으로는 공포 정치로 극단화된 프랑스 혁명과 인간의 소외가 만연한 시민 사회에 대한 실망에서 나왔으며, 근본적으로는 혁명의 사상적 모태인 계몽주의에 대

한 강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가 보기에, 계몽주의는 추상적 지성의 계몽에만 경도되어 인간의 소중한 정신 능력들의 조화를 파괴했기 때문에 혁명의 과격화는 필연적이다. + 4문단 2-6행 -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그가 지향하는 이상은 계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신화학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화해, 즉 신학을 통해 참된 모습으로 변용된 계몽이다. 실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계의 재림처럼 그가 지향하는 신화학 역시 계몽의 미적 고양을 핵심으로 한다.

④ [근거] 3문단 13-17행 - 이에 실리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참된 인문 공동체를 구하기 해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인간 심성 자체의 미적 교육, 즉 감성 충동과 이성 충동을 화해시키는 '유회 충동'의 계발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 4문단 7-10행 - 더 나아가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노선을 무정부주의 방향으로까지 극단화하여, 신화학이라는 미적 차원의 문화를 참된 현실 정치의 선행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국가의 종식을 통해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구상한다.

⑤ [근거] 4문단 7-10행 - 더 나아가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노선을 무정부주의 방향으로까지 극단화하여, 신화학이라는 미적 차원의 문화를 참된 현실 정치의 선행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국가의 종식을 통해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구상한다.

6. ㉔의 입장에서 ‘새로운 신화학’을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정치에 등을 돌리고 미적 차원을 지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대 사회가 초래한 만인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 ② 역사가 진행될수록 위축되어 온 인간의 자유를 이성에 의거하여 복원하려는 것은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는 부질없는 노력이 다.
- ③ 삶의 근대적 양상을 정치적 차원에서만 고찰하는 것은 그 양상이 이성의 전횡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 ④ 신화학을 통해 변용된 계몽의 모델을 과거에서 찾는 것은 감성주의적 이상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 아니다.
- ⑤ 당대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극복된 과거를 모범으로 삼는 것은 퇴행적 발상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㉔ [근거] 3문단 11-13행 - 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심성이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미분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 4문단 2-6행 -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그가 지향하는 이상은 계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신화학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화해, 즉 신화학을 통해 참된 모습으로 변용된 계몽이다. 실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계의 재림처럼 그가 지향하는 신화학 역시 계몽의 미적 고양을 핵심으로 한다. + 5문단 3-9행 - 이러한 환은 과거의 신화적 세계와 당대의 국가적 삶의 양식에 한 새로운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근대의 정치적 양상이 이제는 상실이 아니라 획득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견 아름다워 보이는 고대에서는 오히려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절대 다수의 억압이 자행되었고, 시민 사회를 거쳐 형성된 근대의 입헌적 질서에서는 다수의, 나아가 만인의 보편적 자유가 구현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새로운 신화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하자는 실러의 정치 미학의 영향을 받아 이성과 감성의 화해를 통한 계몽을 추구했으나, 이를 비판한 강화된 이성지상주의인 ㉔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화학이 모범으로 삼는 고대 그리스 시대는 사실 절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의 보편적 자유가 침해받는 시대이며, 이것은 당대(위 글에서 철학적 근대)의 참된 가치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 사회를 통한 근대의 입헌적 질서에서 억압받던 다수의 보편적 자유가 구현됨으로서 과거 고대 그리스 시대의 폐단은 극복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㉔의 입장에서 새로운 신학을 비판하는 것으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㉔의 입장에서는 근대 사회가 입헌적 질서를 통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자행된 만인에 대한 억압이 극복되었다고 보고 있다.

② [연결논리] ㉔의 입장에서는 근원적 원리인 이성이 현상계인 현실 세계에 실현되는 과정을 역사라고 보고 있다.

③ [연결논리] ㉔의 입장은 이성을 지지하는(이성지상주의자니까..) 입장이지 이성의 전횡을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다.

④ [연결논리] ㉔의 입장에서는 감성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다.

# 그믐달 국어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세기 초반 미국의 법률가들은 법철학이 실무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학문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법철학자들은 대개 권리나 의무의 본질에 대한 막연한 이론을 늘어놓기만 할 뿐, 그것이 구체적인 법률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호펠드의 이론은 당시의 통념을 깨뜨린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다의적인 법 개념의 사용으로 인해 법률가들이 잘못된 논증을 하게 되고 급기야 법적 판단을 그르치기까지 한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무엇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권리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권리 문장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률가들이 ‘사람에 대한 권리’와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물건에 대한 권리’도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그는 법률가들이 권리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지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권리자와 그 상대방의 지위를 나타내는 네 쌍의 근본 개념을 확정할 수 있었다. 결국 모든 법적인 권리 분쟁은 이들 개념을 이용하여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대방은 그 행위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둘째, 자유권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 행위를 요구할 청구권이 없다. 셋째, 형성권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자의 처분이 있으면 곧 지위 변동을 겪게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상대방이 현재 점하고 있는 지위, 곧 피형성적 지위인 것이다. 넷째, 면제권은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자신의 지위 변동을 겪지 않을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처분을 할 만한 형성권이 없다.

호펠드는 이러한 근본 개념들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와 관계적 특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리 문장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완성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구권이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비해, 형성권은 상대방과의 법률 관계를 통제하는 결과 그의 행위에 한 통제도 이루게 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권이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인 주장이라면 자유권은 그러한 주장으로부터의 해방이며, 형성권이 상대방과의 법률 관계에 한 적극적인 처분이라면 면제권은 그러한 처분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단일한 권리 관계 내에서 볼 때 만일 누군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자유권을 가질 수 없고, 만일 누군가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면제권을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유권자의 상대방은 동시에 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면제권자의 상대방 또한 동시에 형성권을 가질 수 없다.

호펠드는 이러한 권리의 문법에 근거하여 ‘권 대(對) 리담’ 사건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법철학 이론도 법률 실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육류 생산업자인 원고에게는 피고가 속해 있는 도축업

자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고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객들에게 원고와 거래하지 말 것을 중용함으로써 원고의 자유에 간섭하고, 그 결과 원고의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호펠드의 분석에 따르면, 판사는 원고에게 자유권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곧바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정작 이 자유권의 실효 보장을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호펠드의 희망은 이렇듯 개념의 혼동과 논증의 오류가 정의와 올바른 정책 방향에 한 법률가들의 성찰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데 자신의 연구가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훗날 판례 속의 법적 개념과 논증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미국 법학의 큰 흐름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위 글에 나타난 호펠드 법철학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권리 문장에 사용되는 권리 개념의 다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② 권리에 대한 법률가들의 통념적 구별이 가질 수 있는 개념적 오류를 비판함.
- ③ 권리 문장의 분석을 통하여 권리들 간에 우선순위가 발생하는 근거를 해명함.
- ④ 권리 문장을 사용한 법률가들의 추론에 논리의 비약이 내재해 있음을 규명함.
- ⑤ 권리 개념들 간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의 일반 이론을 모색함.

<정답 선택지 해설>

③ [근거] 2문단 전체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호펠드 법철학에서는 권리 문장의 분석을 통해 모든 권리 문장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구성될 수 있다는 것과, 권리자와 그 상대방의 지위를 나타내는 네 쌍의 근본 개념(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을 확정하여 모든 법적인 권리 분쟁을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지, 근본 개념에 해당하는 권리들 간의 우선순위(ex. 청구권은 면제권에 선행한다.)를 고려하지는 않았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1문단 6-11행 - 그는 다의적인 법 개념의 사용으로 인해 법률가들이 잘못된 논증을 하게 되고 급기야 법적 판단을 그르치기까지 한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누가 무엇인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권리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② [근거] 2문단 1-5행 - 그는 모든 권리 문장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률가들이 '사람에 대한 권리'와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물건에 대한 권리'도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④ [근거] 마지막 문단 9-18행 - 호펠드의 분석에 따르면, 판사는 원고에게 자유권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곧바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정작 이 자유권의 실효 보장을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호펠드의 희망은 이렇듯 개념의 혼동과 논증의 오류가 정의와 올바른 정책 방향에 한 법률가들의 성찰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데 자신의 연구가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훗날 판례 속의 법적 개념과 논증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미국 법학의 큰 흐름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⑤ [근거] 4문단 1-3행 - 호펠드는 이러한 근본 개념들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와 관계적 특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리 문장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완성하고 있다.

8. 두 사람 사이의 단일한 권리 관계에서 볼 때, 권리의 문법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이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 ②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동시에 그는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 ③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이 일정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 ④ 누가 어떤 권리를 갖지 않으면 동시에 그는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 ⑤ 누가 어떤 권리를 갖지 않으면 상대방이 일정한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 [근거] 3문단 전체 + 4문단 3-15행 - 그에 따르면 청구권이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비해, 형성권은 상대방과의 법률 관계를 통제하는 결과 그의 행위에 한 통제도 이루게 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권이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인 주장이라면 자유권은 그러한 주장으로부터의 해방이며, 형성권이 상대방과의 법률 관계에 한 적극적인 처분이라면 면제권은 그러한 처분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단일한 권리 관계 내에서 볼 때 만일 누군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자유권을 가질 수 없고, 만일 누군가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면제권을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유권자의 상대방은 동시에 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면제권자의 상대방 또한 동시에 형성권을 가질 수 없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두 사람의 단일한 권리 관계에서 호펠드의 권리의 문법을 적용하면, 누군가가 청구권 또는 형성권을 가지면 상대방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지위 변동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①), 누군가가 청구권, 자유권 혹은 형성권, 면제권을 가지면 상대방은 자유권, 청구권 혹은 면제권, 형성권을 갖지 못하고(③), 누군가가 자유권 또는 면제권을 갖지 않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청구권 또는 형성권을 가졌을 때, 그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지위 변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선지에서는 '판단을 내린다'와 같은 단정적인 진술이 아니라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라는 진술을 쓴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가 어떤 권리를 갖지 않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졌을 때에 누군가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갖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지 않았을 때에는 누군가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②), 누군가가 청구권 또는 형성권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지위 변동을 감수해야 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⑤), 선지의 진술과 같이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가지는 것은 호펠드의 권리의 문법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그믐달 국어

9. 호펜드의 근본 개념들이 <보기>의 상황에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경기 도중 득점 기회를 잡은 선수 A를 막으려고 상대 팀 선수 B가 정당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A는 경기장이 미끄러운 탓에 몸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심판 C는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B를 퇴장시켰다. 심판은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B의 팀은 C의 판정에 따라 한 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했다. 감독 D는 수비 약화를 우려하여, 뛰고 있던 공격수를 빼고 몸을 풀고 대기 중인 선수 E를 투입했다.

- ① A는 B에게 몸싸움을 걸지 말라고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 ② A는 C에게 그의 판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 ③ B는 C의 판정만으로 퇴장당하게 되는 피형성적 지위에 있지 않다.
- ④ C는 D에 의해 판정의 자율성을 침해 받지 않을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
- ⑤ D는 E가 시합에 나가지 않을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 [근거] 3문단 8-10행 - 넷째, 면제권은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자신의 지위 변동을 겪지 않을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처분을 할 만한 형성권이 없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심판 C는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지위, 이를 다시 말하면, 판정에 대해 어떠한 상대방의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ex. 어떤 판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 의해 심판직에서 해임되는 경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지위 변동을 겪지 않는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3문단 1-3행 - 각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대방은 그 행위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A와 B는 경기를 하는 선수이고 경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B가 A에게 경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하게 몸싸움을 건 것이므로, A는 B에게 몸싸움을 걸지 말라고 요구할 청구권이 없다.

② [근거] 3문단 1-3행 - 각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대방은 그 행위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심판 C는 A에 대해 자신의 판정이 잘못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근거] 3문단 5-8행 - 셋째, 형성권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동

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자의 처분이 있으면 곧 지위 변동을 겪게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상대방이 현재 점하고 있는 지위, 곧 피형성적 지위인 것이다.

⑤ [근거] 3문단 3-8행 - 둘째, 자유권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 행위를 요구할 청구권이 없다. 셋째, 형성권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자의 처분이 있으면 곧 지위 변동을 겪게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상대방이 현재 점하고 있는 지위, 곧 피형성적 지위인 것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선수 E는 감독 D가 이끄는 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 D의 지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감독 D의 판단에 따라 후보 선수로서의 지위에서 출장 선수로서의 지위(즉, 후보로 벤치에 대기하다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것)로 지위 변동을 겪으므로, D는 E에 대해 형성권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D는 E에게 경기에 출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E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한 D의 지시를 거부하고 시합에 나가지 않을 자유권이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감독 D는 선수 E에 대해 경기에 출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경기 과정에서 후보로 대기시킬지 경기에 출장시킬지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고, 단일한 권리 관계 내에서 누군가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에 반대되는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선수 E는 감독 D에 대해 자유권과 면제권을 모두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많은 나라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요소 투입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모델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 모델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 등이 있다.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계 기업, 특정 영역의 연관 기업 등이 유사성이나 보완성 등으로 서로 연결된 집단으로 정의된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결된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즉 기업이나 산업의 · 후방 부가가치 네트워크의 특성을 먼저 고찰하고, 다음으로 전문 기능, 기술, 정보 등을 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을 악한 후, 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규제 기관의 역할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사례인, 전통적인 포도 재배 지역에 형성된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클러스터의 경우, 포도 재배는 이 지역의 농업 클러스터와, 와인 양조는 식품업 및 관광업 클러스터와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한 와인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지역 대학, 지방 정부, 지역 상·하원의 특별 위원회와도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제도, 문화, 규범, 분위기 등의 상부구조와 교통망이나 통신망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및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 정부 등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상·하부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를 말한다. 지역혁신체계는 혁신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적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발전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하부구조는 혁신 주체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의 혁신 성과물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대표적 사례로 ㉡스웨덴 시스타 과학 단지들 수 있는데, 이 단지의 특징은 활성화된 산·학·연 협력, 대·중소 기업 간 협력 체계, 지방 정부의 도로 등 기반 시설 투자, 경쟁 기업 간 활성화된 공동 연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자본은 국가나 지역, 개별 집단 등 공동체의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정, 협력,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등을 뜻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 1980년 이후 사회자본에 한 관심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의 달성이 사회자본의 내용과 질에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사례가 영세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 오타구 나카마 공동체인데, 나카마 공동체란 동업의 친구나 서로 잘 아는 관계라고 불릴 수 있는 성격의 집단을 뜻한다. 종업원 10인 이하인 이 지역의 세 기업들은 신뢰·협력·경쟁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물망처럼 얽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전문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의 개념은 모두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에서 네트워크는 구성 요소들 간 연계 체계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부가가치나 혁신성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된다.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인 조정,

협력, 신뢰, 규범의 호혜성의 정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네트워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하다. 이때 사회자본은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에서 구성 요소들 간 관계를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즉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네트워크에서 높은 질적 수준을 지닌 사회자본이 형성되면, 이들 네트워크의 참여자 수는 증가하며 교류 빈도 또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는 강한 유대감 속에서 성장하면서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한 집합적 상승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 그믐달 국어

## 10.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클러스터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나 산업의 보완적인 상호 연관성을 높이는 데 있다.
- ② 지역혁신체계는 기술과 지식의 창출과 응용을 위한 혁신 지향적 연결망이다.
- ③ 사회자본에서는 공동체 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중시된다.
- ④ 지역 발전에 있어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네트워크는 촉매 역할을,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
- ⑤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은 지역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역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 [근거] 마지막 문단 1-9행 -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의 개념은 모두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에서 네트워크는 구성 요소들 간 연계 체계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부가가치나 혁신성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된다.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인 조정, 협력, 신뢰, 규범의 호혜성의 정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네트워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하다. 이때 사회자본은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에서 구성 요소들 간 관계를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지역 발전에 있어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네트워크는 지역의 부가가치나 혁신성을 높이는 원동력 역할을,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 간 관계를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2문단 1-8행 -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계 기업, 특정 영역의 연관 기업 등이 유사성이나 보완성 등으로 서로 연결된 집단으로 정의된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해서는 상호연된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즉 기업이나 산업의 후방 부가가치 네트워크의 특성을 먼저 고찰하고, 다음으로 전문 기능, 기술, 정보 등을 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을 약한 후, 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규제 기관의 역할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② [근거] 3문단 1-5행 -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제도, 문화, 규범, 분기 등의 상부구조와 교통망이나 통신망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및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 정부 등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상 . 하부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를 말한다.

③ [근거] 마지막 문단 5-8행 -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인 조정, 협력, 신뢰, 규범의 호혜성의 정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네트워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하다.

⑤ [근거] 1문단 전체 + 마지막 문단 1-2행 -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의 개념은 모두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 11. 위 글에 따라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예전부터 여름철 관광지로 유명한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산업이나 지식 자산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낙후 도시였다. 1960년 OO대학 부총장은 첨단 기술 산업 중심의 산, 학, 연 혁신 주체들이 모여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학 도시를 구상했다. 이 구상은 1960년대 중반에 이 도시에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중앙 정부의 지방분권법 제정도 이 도시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는 교통, 통신망을 확충하고 과학 기술 두뇌가 집적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방 정부는 협력적인 산, 학, 연 관계의 조성을 촉진시켰고, 민간에서는 민, 관 협력 기구를 설립하여 정보통신 분야 선도 기업들을 유치한 후 연관 기업이 입지하도록 유도하였다.

- ① 1960년의 최초 구상은 물리적 하부구조의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 ② 1960년대 이전의 사회자본이 기술 혁신을 촉진시켰다.
- ③ 1960년대 이전에 클러스터 기반이 형성된 도시에 정부의 발전 전략이 적용되었다.
- ④ 1980년대 이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작용하였다.
- 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을 조성하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 [근거] 3문단 1-9행 -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제도, 문화, 규범, 분기 등의 상부구조와 교통망이나 통신망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및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 정부 등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상 . 하부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를 말한다. 지역혁신체계는 혁신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적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발전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하부구조는 혁신 주체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의 혁신 성과물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설명하면, 1982년 중앙 정부가 지역혁신체계의 상부 구조에 해당하는 지방 분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혁신체계의 물리적 하부구조인 교통망과 통신망을 설치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 지역혁신체계의 사회적 하부구조인 지방 정부가 혁신 주체인 산(업≒기업), (대)학, 연(연구소) 협력 체계를 촉진시키고, 정보통신 분야 선도 기업을 유치하여(민간이 일부 개입했기는 했으나, 민, 관 협력 기구를 설립하여 기업을 유치한 것이므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인정된다.) 연관 기업들이 입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통해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과학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방 분권법이라는 상부 구조와 사회적 하부구조를 긴밀하게 연계시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3문단 1-5행 -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제도, 문화, 규범, 분

# DROP.THE.LEET!

기 등의 상부구조와 교통망이나 통신망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및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 정부 등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상·하부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를 말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설명하면, 1960년의 최초 구상은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첨단 기술 중심의 산, 학, 연 혁신 주체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과학 도시로 만드는 것이고, 산(업=기업), (대)학, 연(연구소)는 물리적 하부 구조가 아닌 사회적 하부 구조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연결논리] <보기>에 따르면, 1960년대 이전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지식 자산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낙후 도시였다고 하였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연결논리] ②의 [연결논리]와 동일

⑤ [연결논리] <보기>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산, 학, 연 간의 관계 조성을 촉진시킨 것은 지방 전부이고, 정보통신 분야 선도 기업과 연관 기업 유치를 한 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한 것이지 기업이 중심이 된 것은 아니므로, 혁신 주체 간의 협력이라는 사회자본을 조성한 중심 주체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하나의 클러스트가 기능화된 여러 클러스터로 구성된 복합 구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은 전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물리적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지방 정부의 활동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 ④ ㉢에서 경쟁 기업들 간에도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혁신을 위해 상·하부구조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은 개별 기업이 지닌 영세성의 한계를 기업체 내부의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⑤ [근거] 4문단 9-12행 - 종업원 10인 이하인 이 지역의 세 기업들은 신뢰·협력·경쟁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물망처럼 얽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전문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은 영세 기업들이 그물망처럼 얽힌 공동체를 구성하며 각각의 기업들의 전문 기능을 특화시켜 고도화하여(경쟁이 있기는 하지만 ㉣의 성격으로 볼 때 선지의 경쟁일 가능성이 높다) 신뢰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로 개별 기업이 가진 영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전문 기능을 특화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의하고(협업을 위한) 신뢰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업체 내부의 소통 네트워크 강화가 아닌 기업체 간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2문단 9-14행 -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사례인, 전통적인 포도 재배 지역에 형성된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클러스터의 경우, 포도 재배는 이 지역의 농업 클러스터와, 와인 양조는 식품업 및 관광업 클러스터와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한 와인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지역 대학, 지방 정부, 지역 상·하원의 특별 위원회와도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② [근거] 2문단 9-14행 -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사례인, 전통적인 포도 재배 지역에 형성된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클러스터의 경우, 포도 재배는 이 지역의 농업 클러스터와, 와인 양조는 식품업 및 관광업 클러스터와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한 와인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지역 대학, 지방 정부, 지역 상·하원의 특별 위원회와도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③ [근거] 3문단 9-12행 - 그 대표적 사례로 스웨덴 시스타 과학 단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지의 특징은 활성화된 산·학·연 협력, 대·중소 기업 간 협력 체계, 지방 정부의 도로 등 기반 시설 투자, 경쟁 기업 간 활성화된 공동 연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④ [근거] 3문단 1-5행 -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제도, 문화, 규범, 분위기 등의 상부구조와 교통망이나 통신망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및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 정부 등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상·하부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를 말한다. + 3문단 9-12행 - 그 대표적 사례로 스웨덴 시스타 과학 단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지의 특징은 활성화된 산·학·연 협력, 대·중소 기업 간 협력 체계, 지방 정부의 도로 등 기반 시설 투자, 경쟁 기업 간 활성화된 공동 연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로 볼 때, 경쟁 기업 간에도 공동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선의의 경쟁을 활성화

## 그믐달 국어

하는 분위기와 같은 상부 구조가 마련되어서 하부 구조인 경쟁 기업들  
간에도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끔 상, 하부 구조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물리학은 크게 변모했다. 특히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 두 예는 과학의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의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다.

1905년 발표된 특수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 같은 물리학의 개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들을 고쳐 쓰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상대 운동에 관한 유효한 공식으로 승인되었던 속도의 덧셈 법칙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칙은 시속 15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시속 150km로 달리는 선로의 기차를 볼 때 그것이 시속 300km로 도망가는 듯 보인다는 상식인 사실을 설명해 주지만,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덧셈 법칙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고전물리학이 새 이론에 의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전물리학의 식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에서 말한 기차가 만일 초속 15만km로 달린다면 새 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계산에 뚜렷한 차이가 나겠지만,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에서도 두 계산의 결과는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보여 준다.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고스란히 포섭하는 반면, 고전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중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조건으로 제한되는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때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면서 설명과 예측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물리학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양자역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1910년에 물리학자들은 원자에 속한 전자들의 동역학적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고전물리학으로는 그런 설명이 불가능했다. 결국 물리학자들은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진제들을 토대로 삼아 양자역학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문제의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원자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전자의 운동은 고전물리학으로 설명되는 반면, 원자 안의 전자를 설명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원자 안의 전자가 충분한 에지를 얻으면 자유로운 전자가 되는데, 마치 그게 풀려나면서 양자역학의 영토로부터 고전물리학의 영토로 건너오는 꼴이었다.

문제는 양자역학의 식들이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의 등장이 물리학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양자역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당구공의 충돌 같은 현상이 고전물리학 고유의 영역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부터 발달한 혼돈이론의 경우는 두 이론 간 관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혼돈이론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살피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라는 개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혼돈 이론이 고전물리학의 영토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묘하게 서로 연결된다. 원

자에서 막 풀려나오는 순간의 전자에 대응되는 극한 조건을 가정하면 신동하게도 양자역학의 식은 고전물리학이 내놓는 식과 일치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각기 다른 현상 영역을 맡아 설명하고 있는 두 이론이 극한 조건 아래 두 영역의 경계에서 만나 매끄러운 이음매를 만들며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연결을 통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은 물리학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부분들로 자리를 잡는다.

만일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졌거나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20세기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리학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해진 사실은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대한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가지고 있다.

# 그믐달 국어

13. 위 글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한 것은?

④ [근거] 2문단 전체

- ① 혼돈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적용된다.
- ② 원자에 속한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고전물리학이 적용된다.
- ③ 고전물리학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은 특수상대성이론에서도 유지된다.
- ④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속도의 덧셈 법칙은 고전물리학에서와 동일한 식으로 표현된다.
- ⑤ 음속과 비슷한 속력의 운동은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 중 어느 것으로 설명하든 거의 차이가 없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 [근거] 3문단 1-11행 - 그렇다고 해서 고전물리학이 새 이론에 의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전물리학의 식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에서 말한 기차가 만일 초속 15만km로 달린다면 새 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계산에 뚜렷한 차이가 나겠지만,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에서도 두 계산의 결과는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보여 준다.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고스란히 포섭하는 반면, 고전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중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제한되는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시속 15만km의 운동과 같이 속도가 매우 큰 상황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계산이 큰 차이가 나지만,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에 해당하는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의 운동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의 설명력이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포섭할 수 있어 두 계산의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이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위 글에서는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라고 진술했는데 선지의 진술에서는 '음속과 비슷한 속력'이라고 진술한 부분이다. '음속을 넘는다'라는 진술은 '음속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음속보다 큰 차이가 나게 빠를' 수도 있다. 그런데 단지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라 진술해놓고 선지에서는 '음속과 비슷한 속력'이라고 진술해 놓으면, '음속을 넘는다=음속보다 조금 빨라서 비슷한 정도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며 혼동이 올 수 있다. 수능 시험이었다면 음속(찾아보니 시속 1224km였다.)의 정확한 수치를 명시해 줬겠지만 대학교 4학년 대상 시험이다 보니 이렇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혹시 내가 적어놓은 대로 사고해서 혼동이 온 것이라면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5문단 6-12행 - 1980년부터 발달한 혼돈이론의 경우는 두 이론 간 관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혼돈이론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살피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라는 개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혼돈 이론이 고전물리학의 영토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근거] 4문단 6-8행 - 원자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전자의 운동은 고전물리학으로 설명되는 반면, 원자 안의 전자를 설명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③ [근거] 2문단 1-4행 - 1905년 발표된 특수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 같은 물리학의 개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들을 고쳐 쓰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상대 운동에 관한 유효한 공식으로 승인되었던 속도의 덧셈 법칙도 이에 해당한다.

# DROP.THE.LEET!

14. ㉠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위 글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의 진보를 평가할 때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옛 이론도 고려해야 한다.
- ② 물리학의 진보는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 ③ 두 이론의 영역이 만나는 경계에서 두 이론의 식이 일치한다면 두 이론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 ④ 두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면 두 이론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없다.
- ⑤ 옛 이론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새 이론이 해결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과학의 진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 [근거] 4문단 1-6행 - 양자역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1910년에 물리학자들은 원자에 속한 전자들의 동역학적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고전물리학으로는 그런 설명이 불가능했다. 결국 물리학자들은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삼아 양자역학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문제의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 6문단 전체 + 마지막 문단 1-3행 - 만일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졌거나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20세기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각각의 이론들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의 전제가 서로 양립가능하지 않고 양자역학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고전물리학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영역과 이것의 역에 해당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두 영역이 양립가능해 보이지 않아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면서 고전물리학에서 다루지 못한 영역까지 다룰 수 있었던 특수상대성이론과는 달리 양자역학의 등장을 물리학의 진보라고 보기에 논란이 될 수 있었으나, 양립가능해 보이지 않던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도 극한 조건에서는 매끄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은 양립가능하지 않은 이론이 아닌 물리학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부분으로 드러나면서 ㉠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5문단 1-6행 - 문제는 양자역학의 식들이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의 등장이 물리학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양자역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당구공의 충돌 같은 현상이 고전물리학 고유의 영역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 마지막 문단 1-3행 - 만일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졌거나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20세기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근거] 3문단 11-13행 - 이렇게 볼 때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면서 설명과 예측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물리학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③ [근거] 6문단 전체

⑤ [근거] 5문단 1-6행 - 문제는 양자역학의 식들이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의 등장이 물리학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양자역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당구공의 충돌 같은 현상이 고전물리학 고유의 영역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

# 그믐달 국어

15. 위 글의 관점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갈릴레오 낙하 법칙  $s = \frac{1}{2}gt^2$ 은 자유롭게 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거리(s)와 낙하 시간(t)의 관계를 통해 나타낸다. 뉴턴 역학의 중력 법칙과 운동 방정식을 쓰면 갈릴레오의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뉴턴 역학의 관점을 엄격히 적용하면 갈릴레오의 법칙은 정확한 진술이 아니다. 물체가 낙하함에 따라 물체와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가 변하고 그에 따라 둘 사이의 중력도 변하기 때문에, 낙하 법칙에서 상수로 가정된 중력 가속도  $g$ 는 사실 상수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낙하 운동은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 아주 작은 구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 ① 특수상대성이론이 고전물리학의 식들을 포섭하는 것처럼 뉴턴 역학은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통해 갈릴레오의 법칙을 포함한다.
- ②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영토가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갈릴레오의 법칙이 유효한 범위는 뉴턴 역학의 영토와 잇닿아 있다.
- ③ 갈릴레오의 법칙은 뉴턴 역학의 관점에서 상수가 아닌  $g$ 를 상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뉴턴 역학과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형성할 수 없다.
- ④ 혼돈이론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을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릴레오의 법칙은 뉴턴 이전의 역학과 뉴턴 역학을 연결하는 이음매 역할을 한다.
- ⑤ 갈릴레오의 법칙과 뉴턴 역학은 서로 상충하는 이론적 진제 위에 구축되었지만, 전자로 후자를 근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론의 상보적 부분들이 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3문단 1-11행 - 그렇다고 해서 고전물리학이 새 이론에 의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전물리학의 식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에서 말한 기차가 만일 초속 15만km로 달린다면 새 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계산에 뚜렷한 차이가 나겠지만,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에서도 두 계산의 결과는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보여 준다.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고스란히 포섭하는 반면, 고전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중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제한되는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특수상대성이론이 고전물리학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는 것처럼, 뉴턴 역학도 엄밀한 조건 하에서는 갈릴레오 낙하 법칙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 아주 작은 구간에서 일어나는’ 낙하 운동에서는 뉴턴 역학과 갈릴레오 낙하 법칙이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이루어 뉴턴 역학이 갈릴레오 낙하 법칙을 포섭하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 [연결논리] <보기>의 상황은 위 글에서 특수상대성이론이 고전역학을 포섭하는 상황과 유사한 것이지,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이 극한 조건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③ [연결논리] ②의 [연결논리] 참고

④ [연결논리] ②의 [연결논리] 참고

⑤ [연결논리] ②의 [연결논리] 참고

# DROP.THE.LEET!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음악에서 개별적인 음 하나하나를 단순한 소리일 뿐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음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음들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맥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의 기본인 요소인 음정과 화음, 선율과 화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떨어진 두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한다. 음정의 크기(1도~8도)와 성질(완전, 장, 단 등)은 두 음의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그에 따라 음정은 세 가지, 곧 완전음정(1도, 8도, 5도, 4도), 불완전음정(장3도, 단3도, 장6도, 단6도), 불협화음정(장2도, 단2도, 장7도, 단7도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한 음의 중복'인 완전1도가 가장 협화적이며, 완전4도 <도-파>는 완전5도 <도-솔>보다 덜 협화적이다. 불완전음정은 협화음정이라는 하나 완전음정보다는 덜 협화적이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직적인 음향보다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선법 음악이 발달했다. 선법 음악은 음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선율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했으며, 그에 반해 그 선율들이 만들어 내는 수직적인 음향은 부차적이었다.

중세의 선법 음악에서는 완전하게 어울리는 음정을 즐겨 사용했다. 그래서 기본으로 완전음정만을 협화음정으로 강조하면서 불완전음정과 불협화음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불완전음정인 3도와 6도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6세기 대위법의 음정 규칙에서는 악보(가)의 예가 보여 주듯이 음정의 성질에 따라 그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7도의 불협화적인 음향이 '매우' 협화적인 음향인 8도로 진행하기 전에 '적당히' 협화적인 음향인 6도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선법 음악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음향을 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도-3도-1도의 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나)

한편 불완전음정 3도가 완전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되면서 '화음'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이다. 예컨대 <도-미-솔>을 음정의 개념에서 보면 <도-솔>, <도-미>, <미-솔>로 두 음씩 묶은 음정들이 결합된 소리로 판단되지만, 화음의 개념에서는 이 세 음을 묶어 하나의 단위, 곧 3화음으로 본다. 이와 같이 세 음의 구성을 한 단위로 취하는 3화음에서는 맨 아래 음이 화음의 근음(根音)으로서 중요하며, 그 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 또한 이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 장3도인지 단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3화음, 단3화음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면 완전5도 <도-솔>에 장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 장3화음'이며, 단3도 <도-미♭>을 더한 <도-미♭-솔>은 '도 단3화음'이다. 화성 음향이 발달해 3화음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위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조성 음악은 이러한 화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한 것이다.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는 양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평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조성 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 한다. 말하자면 화성은 화음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만들어 내는 맥락을 뜻한다. 악보(나)가 보여 주듯이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비금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 그믐달 국어

##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완전음정 <도-솔>은 완전음정 <도-도>보다 덜 협화적이다.
- ② 르네상스 시대보다 중세 시대에 협화적인 음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 ③ 2도-3도-1도의 진행은 불협화음정-불완전음정-완전음정의 단계적 진행이다.
- ④ 장3화음과 단3화음은 근음 위해 쌓은 3도 음정의 성질에 따라 구별된다.
- ⑤ 화음의 개념에 근거한 선율만으로는 곡의 주요 3화음을 알 수 없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 [근거] 6문단 5-6행 -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평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 마지막 문단 4-10행 -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선율은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에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이 내재하므로, 선율 속의 음을 토대로 곡의 주요 3화음을 알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2문단 5-7행 - 여기서 '한 음의 중복'인 완전1도가 가장 협화적이며, 완전4도 <도-파>는 완전5도 <도-솔>보다 덜 협화적이다.  
 ② [근거] 2문단 7-8행 - 불완전음정은 협화음정이기는 하나 완전음정보다는 덜 협화적이다. + 4문단 전체  
 ③ [근거] 2문단 1-5행 - 떨어진 두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한다. 음정의 크기(1도~8도)와 성질(완전, 장, 단 등)은 두 음의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그에 따라 음정은 세 가지, 곧 완전음정(1도, 8도, 5도, 4도), 불완전 음정(장3도, 단3도, 장6도, 단6도), 불협화음정(장2도, 단2도, 장7도, 단7도 등)으로 나뉜다. + 4문단 5-11행 - 특히 16세기 대위법의 음정 규칙에서는 악보 (가)의 예가 보여 주듯이 음정의 성질에 따라 그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7도의 불협화적인 음향이 '매우' 협화적인 음향인 8도로 진행하기 전에 '적당히' 협화적인 음향인 6도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선법 음악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음향을 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도-3도-1도의 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④ [근거] 5문단 9-13행 - 또한 이 근음 위에 쌓은 3도 음정이 장3도인지 단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3화음, 단3화음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면 완전5도 <도-솔>에 장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 장3화음'이며, 단3도 <도-미♭>을 더한 <도-미♭-솔>은 '도 단3화음'이다.

## 17. 선법 음악에서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음의 재료가 협화적 음정에서 불협화적 음정으로 바뀌었다.
- ② 대위적 양식에서 추구하던 선율들의 개별적인 독립성이 쇠퇴하였다.
- ③ 수직적인 음향을 강조하던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④ 화성적 맥락으로 전환되면서 3도 관계의 화음들이 근본적인 화성 진행을 만들었다.
- ⑤ "화성적 선율의 결과이다."라는 사고가 발달하면서 선율과 화성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 [근거] 3문단 2-5행 - 선법 음악은 음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 6문단 1-5행 - 조성 음악은 이러한 화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한 것이다.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는 양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가 등장하였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선법 음악은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율 간의 조화를 이루는 대위적 양식에 기반을 두었지만, 조성 음악에서는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면서 대위적 양식에서 추구하던 각각 독립성을 갖추면서도 조화를 이루었던 다성부 구조가 쇠퇴하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로 이루어졌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중세의 선법 음악이 가장 협화적인 완전음정을 재료로 음악을 구성하고 그 이후 음악부터는 완전음정에 비해 덜 협화적인 음을 쓴 것은 맞으나, 음의 재료 자체가 협화적인 음정에서 불협화적인 음정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음의 재료의 비중에 불협화적인 음정이 선법 음악일때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정도로 봐야 한다.  
 ③ [근거] 6문단 1-5행 - 조성 음악은 이러한 화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한 것이다.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는 양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가 등장하였다.  
 ④ [근거] 마지막 문단 1-4행 - 조성 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 한다. 말하자면 화성은 화음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만들어 내는 맥락을 뜻한다. 악보 (나)가 보여 주듯이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⑤ [근거] 6문단 전체 + 마지막 문단 1-4행 - 조성 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 한다. 말하자면 화성은 화음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만들어 내는 맥락을 뜻한다. 악보 (나)가 보여 주듯이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조성 음악에서 선율과 화성의 구조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수평적인 선율은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수평적인 선율에는 화음이 내재해 있으므로,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선율이 화음의 결과일 수는 있으나 화음 간의 연결로 이루어진 화성이 선율의 결과일 수는 없다.

18. <조건>에 따라 <보기>의 곡을 작곡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 건>

- 선율은 '도'를 으뜸음으로 한다.
- 한 마디에는 하나의 화음을 사용한다.

<보 기>

별—이 빛나 는 밤 에 그—대 빛나 는 구 나

- ① ㉠의 화음에는 '미'가 내재되어 있다.
- ② ㉡에는 버금딸림음 7화음이 사용되었다.
- ③ ㉢에는 딸림 7화음이 사용되었다.
- ④ 으뜸화음에서 시작하여 으뜸화음으로 끝난다.
- ⑤ 각 마디의 첫 음은 그 마디에 사용된 화음의 근음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 [근거] 5문단 6-16행 - 이와 같이 세 음의 구성을 한 단위로 취하는 3화음에서는 맨 아래 음이 화음의 근음(根音)으로서 중요하며, 그 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 또한 이 근음 위에 쌓은 3도 음정이 장3도인지 단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3화음, 단3화음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면 완전5도 <도-솔>에 장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 장3화음'이며, 단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 단3화음'이다. 화성 음향이 발달해 3화음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위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 마지막 문단 4-10행 -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조건>에서 선율의 으뜸음은 '도'이므로 '도'를 중심으로 5도 위에 있는 '솔'이 딸림음, '도'를 중심으로 5도 아래에 있는 '파'가 버금딸림음이 되며,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을 주요 화음이라고 하는데, ㉠은 <도-미-솔>로 구성된 으뜸화음 ㉡은 <파-라-도-미>로 구성된 버금딸림 7화음, ㉢은 <솔-시-레-파>로 구성된 딸림 7화음인데, ㉠, ㉡, ㉢의 첫음은 솔, 도, 레로 ㉠, ㉡, ㉢에 사용된 화음의 근음인 도, 파, 솔과 다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5문단 6-9행 - 이와 같이 세 음의 구성을 한 단위로 취하는 3화음에서는 맨 아래 음이 화음의 근음(根音)으로서 중요하며, 그 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 + 6문단 5-6행 -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평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은 선율에 포함되는

마디이므로 선율의 특징을 갖고, 선율은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므로,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이 내재해 있고, [정답]의 [연결논리]에서 ㉠은 <도-미>-솔>로 구성된 으뜸화음이라고 하였는데, ㉠에는 '미'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조건>의 '한 마디에는 하나의 화음을 사용한다.'를 고려하면 ㉠에 '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내재'라는 말 때문에 다소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위 글에서는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원들이 내재한다는 것을 선율 안에서 화음의 음이 드러난 것에 화음의 음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음이 있어야 선율의 화음을 갖출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서도 <솔-시>-레-파>로 버금딸림 7화음을 구성하는 음 가운데 '시'가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시'가 있어야만 ㉡의 화음이 구성이 되므로 ㉡에서도 '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근거] 5문단 13-16행 - 화성 음향이 발달해 3화음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위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 마지막 문단 4-10행 -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연결논리] 정답의 [연결논리] 참고

③ [근거] 5문단 13-16행 - 화성 음향이 발달해 3화음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위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 마지막 문단 4-10행 -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연결논리] 정답의 [연결논리] 참고

④ [연결논리] 정답의 [연결논리]에서 ㉠이 '도'를 근음으로 하는 으뜸화음을 밝혔고, '빛나는구나'에 해당하는 마디도 <도-미-솔>로 구성된 으뜸음 '도'를 근음으로 하는 으뜸화음이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 그믐달 국어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3공화국(1875~1940)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동자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세력화한 사건은 프랑스 정치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다. 강력한 노동조합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노동자 정당은 의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화국 체제를 넘어서려는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의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하면서 의제를 핵심으로 한 체제를 안정화해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제의 수행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립의 원칙 및 국가의 역할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우선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기왕의 의회주의 의제 개념에 균열을 가져왔다. 투표함 앞에서 모두가 한 표씩의 권리를 행사하는 평등한 시민의 이익만이 아닌, 특정한 집단들의 특수 이익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인뿐 아니라 직업 집단이나 조합 등까지도 대표의 단위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등한 개인들을 대표한 입법부의 절대적 지위에 변화가 생겼다. 그 대신 행정부가 이익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에 정부 내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이것이 노동부로 개편되었다.

행정부는 특화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장점으로 지닌 다양한 자문 원회의 설치를 통해 대의적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 갔다. 나아가 의제를 다양한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대표로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자라는 국가의 상(像)이 정립되었다. 제3공화국은 78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 절정은 국가 경제 위원회(1916)다. 국가 경제 위원회는 37개 직업 집단으로 구분된 대표 체제를 형성하여 국가 경제 활동의 충실한 대표가 되었다. 국가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치들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특수 이익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조정과 소통을 통해 일반 이익을 형성하며, 나아가 일반 이익의 형성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한편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사회 연대의 형성과 강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체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국민자의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다. 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했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앞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대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복지 국가를 개념화한 것이기도 했다. 그 단적인 예가 실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실업 보험 제도의 도입(1914)이었다. ‘실업’과 ‘실업자’라는

개념을 고안해 낸 국가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이 아닌, 사회적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실재로서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지 정책이 노동자 정당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회 연대의 결실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를 통해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포섭하였다.

노동자 정당의 출현과 함께 일어난 대의제 개념의 변동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형성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대표 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정당성 확보와 시민 권리의 확장이라는 두 요소가 확장된 대의제를 통하여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민주주의의 원환(圓環)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원환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 했던 노동자 정당은 체제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교육자, 나아가 적극적인 보호자로서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삶 자체를 관리하는 거대 권력이 되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등장하던 노동자 정당마저도 그 거대 권력 속에 포섭되어 권력기관화되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국가를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①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 DROP.THE.LEET!

##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부 내의 위원회들은 거의 모든 공적 영역을 포괄하였다.
- ② 노동 위원회의 설치에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에 기여하였다.
- ③ 행정부는 권력의 정당성을 공적 기능의 확대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다.
- ④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 ⑤ 복지 국가의 개념이 확립된 이후 부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기본 대책이 되었다.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⑤ [근거] 4문단 2-13행 -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체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극빈자의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다. 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했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앞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대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복지 국가를 개념화한 것이기도 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복지 국가의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인 제3공화국 초기에는 국가는 사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생활 능력이 없는 극빈자에게 부조를 해주는 정도였지만, 노동자 정당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하며 복지 국가의 개념을 세웠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3문단 1-6행 - 행정부는 특화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장점으로 지닌 다양한 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대의적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 갔다. 나아가 의제를 다양한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대표로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자라는 국가의 상(像)이 정립되었다.

② [근거] 2문단 7-11행 - 그 대신 행정부가 이익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에 정부 내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이것이 노동부로 개편되었다.

③ [근거] 2문단 7-11행 - 그 대신 행정부가 이익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에 정부 내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이것이 노동부로 개편되었다. + 3문단 1-6행 - 행정부는 특화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장점으로 지닌 다양한 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대의적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 갔다. 나아가 의제를 다양한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대표로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자라는 국가의 상(像)이 정립되었다.

④ [근거] 4문단 2-7행 -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체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극빈자의

# 그믐달 국어

20. 제3공화국에서 민주주의의 변동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강화
- ② 사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 형태
- ③ 의회주의를 통한 특수 이익 대표 체계의 강화
- ④ 사회 정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구
- ⑤ 노동자 정당의 성장과 체제 내 포섭

<정답 선택지 해설>  
 ③ [근거] 2문단 전체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제3공화국에서 노동자 정당이 정치 세력화됨에 따라 기존의 의회주의적인 대의제 개념으로는 특정한 집단들의 특수 이익을 설정하고 이해하여 이를 대표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혔고, 그 결과 행정부가 특수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으므로, 의회주의를 통한 특수 이익의 강화는 제3공화국의 민주주의의 변동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4문단 17-21행 -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지 정책이 노동자 정당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회 연대의 결실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를 통해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포섭하였다.  
 ② [근거] 4문단 2-13행 -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계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국민자의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다. 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했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앞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대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복지 국가를 개념화한 것이기도 했다.  
 ④ [근거] 4문단 2-13행 -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계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국민자의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다. 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했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앞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대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복지 국가를 개념화한 것이기도 했다.  
 ⑤ [근거] 5문단 전체

21.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부 내 위원회 확충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 ②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역할의 강화
- ③ 정책 감시와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의 다양화
- ④ 효율적인 여론 수렴 방식을 통한 정책의 정당성 확보
- ⑤ 특수 이익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국가 자율성의 확보

<정답 선택지 해설>  
 ③ [근거] 마지막 문단 2-6행 -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교육자, 나아가 적극적인 보호자로서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삶 자체를 관리하는 거대 권력이 되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등장하던 노동자 정당마저도 그 거대 권력 속에 포섭되어 권력기관화되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제3공화국의 민주주의의 변동 과정에서 의회주의적 대의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특수 이익을 대표하는 일을 행정부가 수행해냈고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지만, 그 결과 국가 권력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노동자 정당도 행정부 내에 포섭되어 행정부 내의 권력기관이 되어 버렸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명분하에 시민들의 삶을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거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악용할 경우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데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노동자 정당마저도 행정부에 포섭되어 행정부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지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치 참여 통로를 다양화하여(행정부가 다양한 특수 이익 집단을 위원회로 포섭하여 정치 참여 통로가 적어졌으니..) 행정부의 권력을 적절히 제어하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정부 내 위원회 확충은 더 많은 이익 집단들을 행정부로 포섭하는 것이므로 ㉠과 거리가 멀다.  
 ② [연결논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은 행정부에 힘을 더 실어주자는 내용이므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과 거리가 멀다.  
 ④ [연결논리] 효율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특수 이익을 파악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체는 행정부이고 결국 행정부에 힘을 더 실어주자는 내용이므로 ㉠과 거리가 멀다.  
 ⑤ [연결논리] 행정부가 특수 이익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게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므로 ㉠과 거리가 멀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587년 프랑스의 한 마을 주민들이 포도 농사를 망친 곤충 바구미 떼를 인근 교회 법원에 고소했다. ㉠ 주민의 변호인은 성서를 인용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며 자연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인간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 바구미의 변호인은 신은 동물에게 번식과 생존을 명했으며 바구미는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결국 주민들은 바구미의 권리를 인정하되 대체 서식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바구미와 체결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물이 교회 권력 혹은 국왕이나 영주 등의 세속 권력에 의해 재판관을 받는 일이 있었다. 세속 재판에 회부된 동물 피고는 주로 사람을 죽인 가축들이었다. 돼지가 가장 흔했고, 소, 말, 개도 법정에서 섰다. 교회 재판에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친 작은 동물이나 곤충들이 피고가 되었다. 재판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송 절차를 엄수하였다. 유죄가 증명되면 세속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사형을, 교회 법원은 교회법에 근거하여 저주와 파문을 선고했다.

동물 재판 관행은 13세기부터 본격화되어 16세기에 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고대 로마법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속과 교회에서 법학이 발전하는 등, 근대법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혹자는 이 물음의 답을 동물과의 충돌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생활 조건과 동물을 의인화하는 민중문화에서 찾기도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성·속의 엘리트들이 이 관행을 이론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물 재판은 13세기 이후 공권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재판 제도하에서 이루어졌다. 중세 초기의 재판 제도는 사실상 개인들의 자력 구제를 재판의 형식에 집어넣은 수준에 불과했다. 민사와 형사 재판의 구별도 모호했고, 공적인 형벌 제도도 없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재판 제도에서는 합리적인 소송 규칙에 따라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권력이 동물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동물 재판을 옹호한 엘리트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에 나오는 뱀에 한 저주의 사례라든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를 들로 쳐 죽이게 한 모세의 율법 등을 원용하였다. 그것들은 세속 법원과 교회 법원의 동물 재판 관행에 대한 법리적 비판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전거들이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인간을 정점에 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신이 부여한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보는 기독교 자연법론도 이론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주의 법질서는 신의 섭리로 간주되는 영원법,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보편타당하고 불변인 자연법, 그리고 인간이 정한 인정법으로 구성된다. 인간과 자연은 자연법에 구속되며,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앞의 바구미 사건에서와 같은 논쟁도 가능했고, 동물이 사물의 자연 질서를 반하면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였다. 엘리트들의 관점에서 동물 재판은 동물을 영원법과 자연법에 복종시키기 한 엄숙한 절차였다. 그들은 동물 재판을 통

해 자신들의 법과 정의의 개념을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계에까지 적용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 재판은 13세기 이후 등장한 인간 중심적 법 개념에 의한 자연의 영유(領有)를 보여 준다. 이렇게 해서 동물 재판은 엘리트들의 보증하에 민중문화와 상호 작용하며 현대인의 눈에 기괴하게 보이는 광경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그 시대에 동물 재판이 가졌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가진 문화적 퍼포먼스로서의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돼지가 아이를 물어 죽이고 수탉이 달걀을 낳는 사태 앞에서 동물 재판은 판결에 이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태를 설명하는 서사를 구성하고 ‘본성을 벗어난’ 동물을 처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와 질서가 안전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 그믐달 국어

22. 위 글의 동물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회 법원과 세속 법원이 다른 종류의 형벌을 선고하였다.
- ② 엘리트의 법 관념과 민중 문화 모두에 기초하고 있다.
- ③ 공권력의 성장이 재판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④ 기독교적 자연법에 재판 절차에 관한 규칙이 있었다.
- ⑤ 성서적 권위를 통해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 [근거] 4문단 전체 + 5문단 5-14행 -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인간을 정점에 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신이 부여한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보는 기독교 자연법론도 이론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주의 법질서는 신의 섭리로 간주되는 영원법,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보편타당하고 불변인 자연법, 그리고 인간이 정한 인정법으로 구성된다. 인간과 자연은 자연법에 구속되며,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앞의 바구미 사건에서와 같은 논쟁도 가능했고, 동물이 사물의 자연 질서를 반하면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였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기독교적 자연법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신이 부여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며, 신의 섭리인 영원법을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자연법에 인간과 자연 만물은 구속되기에 동물이 자연법에 바탕을 둔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여 동물 재판의 정당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 것은 맞으나, 동물 재판 절차에 관한 규칙은 13세기 이후 공권력의 역할과 권한의 강화로 합리적인 소송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성립된 것이지 기독교적 자연법에 이러한 재판 절차에 대한 규칙이 있었던 것은 근거와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2문단 6-8행 - 유죄가 증명되면 세속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사형을, 교회 법원은 교회법에 근거하여 저주와 파문을 선고했다.

② [근거] 5문단 5-14행 -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인간을 정점에 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신이 부여한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보는 기독교 자연법론도 이론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주의 법질서는 신의 섭리로 간주되는 영원법,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보편타당하고 불변인 자연법, 그리고 인간이 정한 인정법으로 구성된다. 인간과 자연은 자연법에 구속되며,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앞의 바구미 사건에서와 같은 논쟁도 가능했고, 동물이 사물의 자연 질서를 반하면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였다.

③ [근거] 3문단 4-9행 - 이런 시기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혹자는 이 물음의 답을 동물과의 충돌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생활 조건과 동물을 의인화하는 민중문화에서 찾기도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성 . 속의 엘리트들이 이 관행을 이론적 .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4문단 전체

⑤ [근거] 5문단 1-5행 - 동물 재판을 옹호한 엘리트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에 나오는 뱀에 한 저주의 사례라든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를 돌려 쳐 죽이게 한 모세의 율법 등을 인용하였다. 그것들은 세속 법원과 교회 법원의 동물 재판 관행에 대한 법리적 비판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이었다.

23. [A]에서 언급한 동물 재판의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사실 관계와 죄책을 규명하여 응보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 ② 신의 징벌을 대행하는 의례를 통해 교회법의 신성함을 수호하였다.
- ③ 인격화된 동물에 대한 재판과 처형을 통해 인간의 속죄 의식을 고양하였다.
- ④ 범죄가 예외 없이 처벌됨을 증명하여 지배 질서의 권위를 과시하였다.
- ⑤ 인간의 규범을 통해 사태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얻고 질서 회복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게 하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 [연결논리] [A]에 따르면, 돼지가 아이를 물어 죽이거나(인간을 정점으로 둔 위계적인 법질서에서 동물이 인간을 해하였기에 사물의 자연 질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수탉이 달걀을 낳는(.) 신의 섭리와 사물의 자연적 질서에 어긋나는 사태를 동물 재판이라는 인간의 규범에 기반을 둔 절차를 통해 판결에 이르는(신의 섭리나 사물의 자연적 질서에 어긋난 사태고, 돼지는 2문단에서 세속 재판의 대상이라고 하였고, 닭도 종교 재판에서 다루는 작은 동물이나 곤충보다는 큰 것으로 보아 세속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유죄로 증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서사에서 사태에 대한 통합적 해석(신의 섭리나 사물의 자연적 질서에 어긋난 사태를 벌인 동물들이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어떤 판결을 받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의 섭리와 사물의 자연적 질서가 정당화된다는 해석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을 얻고 이를 본 사람들은 신의 섭리와 사물의 자연적 질서가 사태에 의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규범을 통해 다시 신의 섭리와 사물의 자연적 질서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를 벗어난 동물의 죄책을 규명하는 것은 맞으나, 응보(당한만큼 되돌려주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규범으로 질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성원들에게 주기 위해 [A]의 동물 재판을 하는 것이다.

② [연결논리] [A]에서 신의 징벌을 대행하는 의례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연결논리] [A]에서 동물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한 것은 맞으나, 인간의 속죄 의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 재판이라는 인간의 규범을 통해 질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성원에게 주는 것이다.

④ [연결논리] [A]에서 동물이라도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예외 없이 처벌되는 것은 맞으나, 단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을 통해 지배 질서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규범을 통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질서가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믿음을 구성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A]의 동물 재판의 목적이다.

24. <보기>는 어떤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보기>의 (가), (나)와 위 글의 ㉠, ㉡의 주장을 비교하여 서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원고의 주장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고 인간은 자연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자연물의 고유한 가치를 자연의 권리로 인정하면, 환경 분쟁에서 유효적절하게 기능할 것이다. 현행법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듯이 자연물에 대해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법해석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현행법하에서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나) 법원의 판결

자연의 권리 및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성문 법률도 없고 그러한 관습법이 통용되고 있지도 않는 이상, 현행법하에서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위를 보는 (가)의 관점에 대해서 ㉠은 동의할 것이다.
- ②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되려면 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와 ㉡의 입장은 일치한다.
- ③ (나)가 언급하는 법에 대해서 ㉠은 자신이 근거로 삼은 법이 상위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④ 모든 권리가 인정법에 근거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의 입장은 일치한다.
- ⑤ (가)와 (나)의 논의에 등장하는 자연의 권리라는 주제에 대해 ㉠과 ㉡은 그것을 신의 섭리 밖의 문제라고 볼 것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 [근거] 1문단 2-9행 - 주민의 변호인은 성서를 인용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며 자연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인간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바꾸미의 변호인은 신은 동물에게 번식과 생존을 명했으며 바꾸미는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결국 주민들은 바꾸미의 권리를 인정하되 대체 서식지를 증명하는 계약을 바꾸미와 체결했다. + 5문단 5-14행 -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인간을 정점에 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신이 부여한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보는 기독교 자연법론도 이론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주의 법질서는 신의 섭리로 간주되는 영원법,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보편타당하고 불변인 자연법, 그리고 인간이 정한 인정법으로 구성된다. 인간과 자연은 자연법에 구속되며,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앞의 바꾸미 사건에서와 같은 논쟁도 가능했고, 동물이 사물의 자연 질서를 받으면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였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보기>의 (나)에서는 자연과 자연물 당사자의 능력을 인정하는 성문 법률과 관습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물인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기>의 (나)에서 언급하는 법은 인간이 정한 인정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근거로 삼은 법은 신의 섭리가 담긴 성서에 따른 법이므로 영원법(혹은 신의 섭리를 인간이 이해한 대로 기록한 것이 성서이고 그 성서에 근거를 뒀으므로 자연법에 근거를 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성서를 영원법이라고 봐야 할지 자연법이라고 봐야

할지 위 글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경계가 애매하다. 나는 어쨌든 신의 섭리가 담긴 책이 성서이므로 영원법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 때문에 혼동이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이라고 할 수 있고, 인정법은 자연법에 반하여 존재하지 못하므로 자연법은 인정법의 상위 법이라고 볼 수 있고, 자연법은 신의 섭리인 영원법을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기에 영원법은 자연법의 상위 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1문단 2-5행 - 주민의 변호인은 성서를 인용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며 자연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인간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데 있다고 했다.

② [근거] 1문단 5-7행 - 이에 대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바꾸미의 변호인은 신은 동물에게 번식과 생존을 명했으며 바꾸미는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보기>의 (가)는 자연과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 해석을 통해 동물인 도롱뇽도 소송 당사자가 될 권리를 인정하였고, ㉡은 동물이 번식과 생존을 명한 신의 명령에 따라 번식과 생존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가)와 ㉡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 법의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④ [근거] 1문단 5-7행 - 이에 대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바꾸미의 변호인은 신은 동물에게 번식과 생존을 명했으며 바꾸미는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⑤ [근거] 1문단 2-7행 - 주민의 변호인은 성서를 인용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며 자연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인간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바꾸미의 변호인은 신은 동물에게 번식과 생존을 명했으며 바꾸미는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 5문단 5-14행 -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인간을 정점에 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신이 부여한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보는 기독교 자연법론도 이론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주의 법질서는 신의 섭리로 간주되는 영원법,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보편타당하고 불변인 자연법, 그리고 인간이 정한 인정법으로 구성된다. 인간과 자연은 자연법에 구속되며,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앞의 바꾸미 사건에서와 같은 논쟁도 가능했고, 동물이 사물의 자연 질서를 받으면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였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과 ㉡은 포도 농사를 망친 곤충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은 법의 근거를 신의 섭리가 담긴 성서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은 법의 근거를 신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 자연법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자연이 권리라는 주제에 대해 신의 섭리 안의 문제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 둘은 <보기>의 (가)와 (나)에 등장하는 자연의 권리라는 주제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 그믐달 국어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에는 지표를 세밀히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1960년 초 반부터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위성 영상 센서는 근래에는 지구 환경의 이해를 위한 과학적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격탐사학은 이러한 센서 시스템을 통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를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격탐사에 사용되는 예지와 물체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주 공간을 빛의 속도로 진행한 후 지구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에서 반사된 다음 다시 대기를 거쳐 위성 센서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물체에 입사하는 에너지와 반사되는 에너지의 비를 반사율이라 하는데, 원격탐사는 파장에 따른 반사율인 분광 반사율을 이용하여 물체의 성질을 알아낸다.

물체는 다양한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최대인 파장을 '최대 에너지 파장'이라 한다. 표면의 온도가 약 6,000K인 태양의 최대 에너지 파장은 0.48 $\mu\text{m}$ 이다. 이에 맞추어 초기의 위성 영상은 가시광선(0.4~0.7 $\mu\text{m}$ )만을 이용했는데, 근래에는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근적외선, 중적외선, 열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 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원격탐사의 유용성이 더욱 커졌다.

예를 들어 우리 눈에는 천연 잔디와 인공 잔디가 같이 녹색으로 보이지만, 근적외선(0.7~1.2 $\mu\text{m}$ )을 사용하면 두 물체는 확연히 구별된다. 녹색의 잎은 이 대역에서 약 50%의 강한 반사를 일으켜 위성 영상에서 밝게 보이는 반면, 인공 잔디는 약 5%만을 반사하여 어둡게 보이기 때문이다.

중적외선(1.2~3.0 $\mu\text{m}$ )은 잎의 수분 함량에 대한 민감도가 가시광선보다 뛰어나 작물의 생육 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다. 또한 중적외선은 물이나 암석의 고유한 분광 반사 특성을 이용한 자원 탐사에도 활용된다.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는 2.17, 2.21, 2.32, 2.58 $\mu\text{m}$ 의 중적외선을 흡수하는데, 어떤 물체의 분광 반사율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이는 고령토로 판단할 수 있다.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열적외선(3~14 $\mu\text{m}$ )은 지표면의 온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최대 에너지 파장은 물체의 온도에 반비례하므로, 산불(온도 약 800K, 최대 에너지 파장 3.62 $\mu\text{m}$ ) 감지나 지표면의 토양, 물, 암석 등(온도 약 300K, 최대 에너지 파장 9.67 $\mu\text{m}$ )의 온도 감지에는 열적외선 센서가 유용하다.

여기서 전자기파는 지표에 도달하기 전과 반사된 후에 각각 대기 입자에 의해 산란 · 흡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층에 먼지, 안개, 구름이 없는 청명한 날에도 산소나 질소 입자와 같이 입사파의 파장보다 월등히 작은 유효 지름을 가지는 대기 입자에 의하여 산란이 발생한다. 이를 레일리 산란이라 하는데, 그 강도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파장이 0.32 $\mu\text{m}$ 인 자외선은 파장이 0.64 $\mu\text{m}$ 인 적색광에 비하여 약 16배 강한 산란을 보인다. 레일리 산란은 대기의 조성과 밀도를 알려 주는 중요한 지시자가 되기도 하지만, 지표를 촬영한 위성 영상

의 밝기와 대비를 감쇠시키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원격탐사 시스템 중에는 레일리 산란의 영향이 큰 청색을 배제하고 녹색, 적색, 근적외선 센서들로만 구성하여, 천연색 영상의 획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 중 전자기파의 흡수는 물질의 고유한 공명 주파수에 따라 특정한 파장 대역에서 발생하는데, 수증기, 탄소, 산소, 오존, 산화질소 등 여러 대기 물질의 흡수 효과가 중첩되므로 일부 파장 대역의 전자기파는 맑은 날에도 지구 대기를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 다행히 가시광선을 비롯한 여러 전자기파 대역은 에너지가 매우 효율적으로 통과되는 '대기의 창'에 속한다. 위성 센서는 반드시 대기의 창에 해당하는 파장 대역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적외선 센서는 대기 수분에 의한 강한 흡수 파장인 1.4, 1.9, 2.7 $\mu\text{m}$ 를 제외하고 설계하며, 열적외선 센서는 주로 3~5 $\mu\text{m}$ 와 8~14 $\mu\text{m}$  대역만을 사용한다.

# DROP.THE.LEET!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원격탐사는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사용한다.
- ② 원격탐사를 통해 식물의 분포뿐 아니라 생육 상태도 알아낼 수 있다.
- ③ 광물이나 암석의 전자기파 흡수는 지표 관측 원격탐사의 방해 요소이다.
- ④ 대기에 의한 전자기파의 산란과 흡수로 인해 지표 관측 원격탐사에서 보정의 필요성이 생긴다.
- ⑤ 지표 관측에 사용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를 두 번 통과하여 인공위성 원격탐사 센서에 도달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 [근거] 5문단 3-7행 - 또한 중적외선은 물이나 암석의 고유한 분광 반사 특성을 이용한 자원 탐사에도 활용된다.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는 2.17, 2.21, 2.32, 2.58 $\mu\text{m}$ 의 중적외선을 흡수하는데, 어떤 물체의 분광 반사율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이는 고령토로 판단할 수 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전자기파인 중적외선을 광물이나 암석이 흡수하는 성질을 활용하여 자원 탐사를 위한 지표 관측 원격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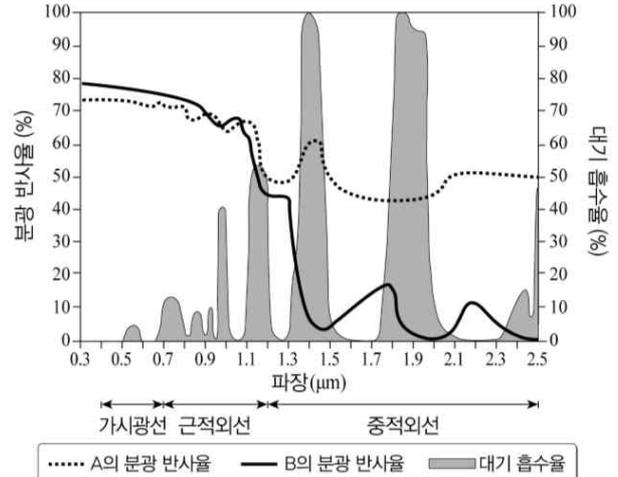
① [근거] 3문단 3-7행 - 이에 맞추어 초기의 위성 영상은 가시광선(0.4~0.7 $\mu\text{m}$ )만을 이용했는데, 근래에는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근적외선, 중적외선, 열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 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원격탐사의 유용성이 더욱 커졌다.

② [근거] 4문단 전체 + 5문단 1-3행 - 중적외선(1.2~3.0 $\mu\text{m}$ )은 잎의 수분 함량에 대한 민감도가 가시광선보다 뛰어나 작물의 생육 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다.

④ [근거] 7문단 8-10행 - 레일리 산란은 대기의 조성과 밀도를 알려 주는 중요한 지시자가 되기도 하지만, 지표를 촬영한 위성 영상의 밝기와 대비를 감쇠시키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⑤ [근거] 2문단 1-4행 -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주 공간을 빛의 속도로 진행한 후 지구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에서 반사된 다음 다시 대기를 거쳐 위성 센서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26. 아래 그림은 지표상의 두 물체 A, B의 분광 반사율과 전자기파의 대기 흡수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A, B의 위성 영상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A는 중적외선 대역 중에서는 약 1.4 $\mu\text{m}$ 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 ② B는 가시광선보다 중적외선에서 밝게 보인다.
- ③ A와 B를 모두 관측할 수 있는 '대기의 창'은 1.9 $\mu\text{m}$ 이다.
- ④ A와 B를 구별하려면 중적외선보다 가시광선 대역이 유리하다.
- ⑤ A와 B는 1.4 $\mu\text{m}$ 보다는 2.2 $\mu\text{m}$ 에서 더 효과적으로 구별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 [근거] 2문단 4-6행 - 물체에 입사하는 에너지와 반사되는 에너지의 비를 반사율이라 하는데, 원격탐사는 파장에 따른 반사율인 분광반사율을 이용하여 물체의 성질을 알아낸다. + 7문단 1-10행 - 여기서 전자기파는 지표에 도달하기 전과 반사된 후에 각각 대기 입자에 의해 산란·흡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 층에 먼지, 안개, 구름이 없는 청명한 날에도 산소나 질소 입자와 같이 입사파의 파장보다 월등히 작은 유효 지름을 가지는 대기 입자에 의하여 산란이 발생한다. 이를 레일리 산란이라 하는데, 그 강도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파장이 0.32 $\mu\text{m}$ 인 자외선은 파장이 0.64 $\mu\text{m}$ 인 적색광에 비하여 약 16배 강한 산란을 보인다. 레일리 산란은 대기의 조성과 밀도를 알려 주는 중요한 지시자가 되기도 하지만, 지표를 촬영한 위성 영상의 밝기와 대비를 감쇠시키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원격탐사는 파장에 따른 반사율인 분광 반사율로 물체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지만, 전자기파가 지표에 도달하기 전과 반사된 후에 각각 대기에 산란되거나 흡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격 탐사 영상의 밝기와 대비를 감쇠시켜 물체의 특성을 알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를 전제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면, A와 B는 1.4 $\mu\text{m}$ 의 파장에서 대기 흡수율이 100%에 근접하여 원격 탐사 영상의 밝기와 대비를 거의 완전히 감쇠시켜 A와 B를 구별하기 힘들게 하지만, 2.2 $\mu\text{m}$ 의 파장에서는 대기 흡수율이 0%에 근접하여 밝기와 대비가 분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이 파장에서 A와 B의 분광 반사율은 분명한 차이가 나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1.4 $\mu\text{m}$ 의 파장에서는 대기 흡수율이 100%에 근접하여 원격 탐사 영상의 밝기의 감쇠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선지의 진



# DROP.THE.LEET!

에 의하여 산란이 발생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레일리 산란은 대기에 분포하는 대기 입자에 의해 전자기파의 산란이 발생하는 것인데, <보기>의 외계 행성의 대기 밀도가 지구보다 낮다는 것에서 같은 면적의 외계 행성의 대기에 분포하는 대기 입자가 지구의 대기에 분포하는 대기 입자보다 적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ex. 대기 1제곱km당 지구 대기에는 수증기가 100이 있다면, <보기>의 외계 행성의 대기에는 수증기 50이 있다.), 레일리 산란은 외계 행성이 지구보다 더 약하다고 봐야 한다.

# 그믐달 국어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성종 24년 9월 예조 판서 성현이 글로 아뢰기를,  
 “근일의 전지(傳旨)에, ‘관상감, 사역원, 전의감, 해민서는 본래 사족(士族)이 아니니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에 넣지 말고 내의원만 넣어라.’ 하셨습니다.

하으나 신은 천문, 지리, 복서(卜筮), 의약, 통역 등 일체의 잡학(雜學)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중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잡학을 문반의 직임으로 삼고 잡과 과거 제도까지 설치한 것은 그 임무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종께서는 문교(文教)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잡학에도 뜻을 두셨기 때문에 당시 인제가 많이 나왔으며, 혹 [A]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여 등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학으로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이미 늙어서 문관이나 무관의 벼슬을 얻지 못한 자가 다만 삼사(三司)에 소속되어 이름을 걸어 놓고 그 음덕이 자손에게 끼쳐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논밭과 하인도 없이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고 있어서 고생이 막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잡학의 부류라고 논하여 정한다면 비록 참서관이라 하더라도 혹 논핵을 당할 경우 법관이 바로 잡아다가 문초할 것이고, 직위가 3품에 오른 자도 음덕이 자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니, 누가 즐기어 소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더욱이 내의원과는 업무상 차이가 없으니 어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예전 그대로 두소서.

신이 분수에 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예관(禮官)으로 있으니, 말은 바 문교와 잡학의 일에 생각한 바가 있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기에 권장할 만한 방도를 다음에 조목으로 진술하겠습니다.

잡학 중에서 역어(譯語)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도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하물며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년에 제조(提調)들은 거의 다 그 말을 알지 못하여 취재(取才)하여 선발할 때 그 무리에게 말기므로 인정을 쓰고 사사로움을 따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어찌 국가에서 법을 만든 뜻이겠습니까? 금후 제조는 한어(漢語)를 해득한 자로 임명하소서.

역관을 취재할 때 경서와 역사서를 강론하는데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도 한어의 음과 뜻은 묻지 아니하고, 「노걸대」, 「박통사」 등의 책은 다만 외우게만 하고 그 뜻을 묻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금후는 사서(四書)와 경서와 역사서는 한어로 음을 읽은 뒤에 주소(註疏)의 깊은 뜻을 묻고, 「노걸대」 등의 책은 외우게 한 뒤에 반복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학과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갓 글자 획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획만 참고하고 말과 음은 전혀 묻지 아니하니, 합격자는 말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국록을 받게 되므로 조정을 기만함이 심합니다. 금후로는 「노걸대」, 「박통사」를 그 말로 번역하게 하고, 취재할 때에는 음을 묻는 것과 글자 쓰는 것을 겸해서 한다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해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역어지남(譯語指南)」은 다만 물건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그 자세한 것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날마다 쓰는 보통 말도 또한 다 분류해서 첨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어와 여진어도 한어 처럼 ‘지남(指南)’을 만들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히게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시기를,

“관상감 등의 관원을 문관과 무관의 예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니하냐를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전의감과 해민서는 질병을 다스리고, 관상감은 천문을 살피고, 사역원은 한어를 전하고, 율학(律學)과 산학(算學) 또한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임무입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중히 여겨 문반과 무반에 넣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내의원과 내시부 등만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하니, 이것이 잡학인이 통분해 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허중은 의논하기를,

“잡학인이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만일 잡학직이라고 논하면 누가 즐겨 입속하여 그 직무를 힘써 익히겠습니까? 이 법은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철건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조종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유 없이 잡학직으로 강등하여 옛법을 어지럽히고 인망을 잃는다면 지극히 편하지 않을 것이니, 예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전교하시기를,

①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28.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역원의 현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관에게는 역사 지식도 중시되었다.
- ② 역관 선발이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 ③ 회화 능력이 뛰어난 역관이 부족하였다.
- ④ 역관 선발 과정에서 실무 능력이 간과되고 있었다.
- ⑤ 외교를 위해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 역관을 양성하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 [근거] 32-36행 - 근년에 제조(提調)들은 거의 다 그 말을 알지 못하여 취재(取才)하여 선발할 때 그 무리에게 말기므로 인정을 쓰고 사사로움을 따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어찌 국가에서 법을 만든 뜻이겠습니까? 금후 제조는 한어(漢語)를 해독한 자로 임명하소서.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예조 판서 성헌이 성종에게 상소하였을 당시 역관들이 속한 사역원에서 역관을 선발할 때 실력에 의한 공정한 선발이 아닌 사사로운 인맥에 의한(속칭 '뺨') 불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37행 - 역관을 취재할 때 경서와 역사서를 강론하는데

③ [근거] 43-49행 - 왜학과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갓 글자 획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획만 참고하고 말과 음은 전혀 묻지 아니하니, 합격자는 말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국록을 받게 되므로 조정을 기만함이 심합니다. 금후로는 「노걸대」, 「박통사」를 그 말로 번역하게 하고, 취재할 때에는 음을 묻는 것과 글자 쓰는 것을 겸해서 한다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해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④ [근거] 37-40행 - 역관을 취재할 때 경서와 역사서를 강론하는데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도 한어의 음과 뜻은 묻지 아니하고, 「노걸대」, 「박통사」 등의 책은 다만 외우게만 하고 그 뜻을 묻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 43-47행 - 왜학과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갓 글자 획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획만 참고하고 말과 음은 전혀 묻지 아니하니, 합격자는 말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국록을 받게 되므로 조정을 기만함이 심합니다.

⑤ [근거] 29-32행 - 잡학 중에서 역어(譯語)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도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하물며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 43-47행 - 왜학과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갓 글자 획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획만 참고하고 말과 음은 전혀 묻지 아니하니, 합격자는 말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국록을 받게 되므로 조정을 기만함이 심합니다.

## 29. ㉠과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하들이 제시한 근거가 아닌 것은?

- ① 잡과 과거 제도 확대의 당위성
- ② 지속적 인재 충원의 필요성
- ③ 전문적 잡학직의 중요성
- ④ 잡학 기관 간의 형평
- ⑤ 조종의 법과 권위

<정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위 글에서 성종은 잡학인을 양반(문반과 무반을 통칭해서 양반이라고 부른다)의 반열에서 제외하여 잡학직으로 강등하려다가 신하들의 반발에 ㉠과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신하들은 잡과 과거 제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은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 [근거] 11-23행 - 이미 세종께서는 문교(文敎)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잡학에도 뜻을 두셨기 때문에 당시 인재가 많이 나왔으며, 혹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여 등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학으로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이미 늙어서 문관이나 무관의 벼슬을 얻지 못한 자가 다만 삼사(三司)에 소속되어 이름을 걸어 놓고 그 음덕이 자손에게 끼쳐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논발과 하인도 없이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고 있어서 고생이 막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잡학의 부류라고 논하여 정한다면 비록 참상관이라 하더라도 혹 논핵을 당할 경우 법관이 바로 잡아다가 문초할 것이고, 직위가 3품에 오른 자도 음덕이 자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니, 누가 즐기어 소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더욱이 내의원과는 업무상 차이가 없으니 어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예전 그대로 두소서.

③ [근거] 5-10행 - 하오나 신은 천문, 지리, 복서(卜筮), 의약, 통역 등 일체의 잡학(雜學)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중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잡학을 문반의 직임으로 삼고 잡과 과거 제도까지 설치한 것은 그 임무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④ [근거] 59-64행 - “전의감과 헤민서는 질병을 다스리고, 관상감은 천문을 살피고, 사역원은 한어를 전하고, 율학(律學)과 산학(算學) 또한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임무입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중히 여겨 문반과 무반에 넣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내의원과 내시부 등만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하니, 이것이 잡학인이 통분해 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⑤ [근거] 71-74행 - “대저 조종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유 없이 잡학직으로 강등하여 옛법을 어지럽히고 인망을 잃는다면 지극히 편하지 않을 것이니, 예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였다.

# 그믐달 국어

30. 위 글의 [A]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하늘이 백성을 내시고 이를 나누어 사민(四民)을 삼으셨으니, 사, 농, 공, 상이 각각 자기의 분수가 있습니다. 선비는 여러 가지 일을 다스리고, 농부는 농사에 힘쓰며, 공인은 공예를 맡고, 상인은 물화를 유통시키는 것이니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관과 의관 등의 잡학인은 나라에 없을 수 없지만, 직임은 자기 분수에 마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군자와 소인을 같이 거처하게 하고, 귀천을 섞이게 한 연후에야 권장이 되겠습니까? 벼슬과 상은 임금의 영웅을 다루는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聖王)은 재덕(才德)이 탁월하거나, 혹은 공로가 중대하고, 혹은 다스린 성과가 제일인 자를 발탁한 일은 있어도, 환관과 역관, 의관을 중용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즉시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어 잡학인이 청류(清流)에 섞이지 않게 하소서.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잡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잡학인에 관련된 과거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잡학인의 처우 개선에 대한 견해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 ④ [A]는 <보기>와 달리, 잡학인의 현실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보기>는 [A]와 달리, 직분에 따른 신분제의 불가변성을 주장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 [연결논리] 위 글의 [A]와 <보기>를 비교하면, 위 글의 [A]에서는 잡학인이 맡는 임무가 나랏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들을 양반에서 제외시킨다면 어느 누구도 잡학인의 지위를 기꺼이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잡학인을 양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비록 잡학인이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본분에 맞는 지위에 속해야 하므로 선비(양반)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 [연결논리] [A]에서는 잡학이 나랏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고 <보기> 또한 잡학 자체는 나라에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② [연결논리] [A]에서는 과거에 세종이 잡학인 가운데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중요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보기>에서는 과거의 성왕이 잡학인을 중용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④ [연결논리] [A]에서는 상소를 올릴 당시 능력 있는 잡학인들이 노쇠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현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보기>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연결논리] [A]에서는 잡학인들이 나랏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양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기>에서는 직분에 따라 정해진 신분은 뒤섞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잡학인을 양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